

96 GD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 수상

## 시대 반영보다 한발 앞선 디자인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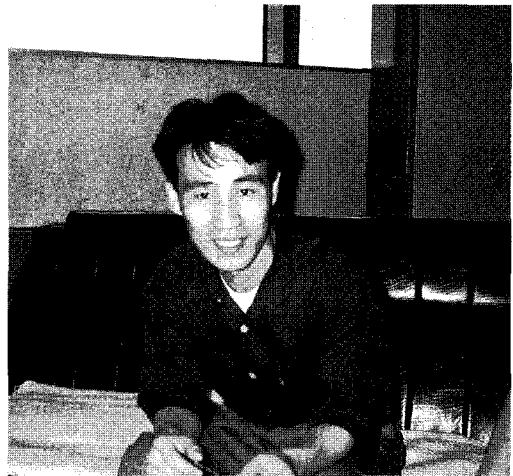
기운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개발처 대리

우루과이 라운드가 대두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그후 각종 지원이 뒤따랐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도 국내 물류표준화를 담당하는 물류지원부와 해외 수출포장을 담당하는 해외개발처 두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21일 통상산업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주최한 96우수디자인상품선정제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수출포장박스 패키지디자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패키지디자인을 맡았던 해외개발처 기운도 대리는 공사에 입사한지 3년만에 이러한 결과를 얻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함께 일한 디자인터치 디자이너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수상소감과 함께 밝혔다.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좋은 두가지 디자인 제품이 검토되었는데 실무자들과 상부와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다가 제가 외국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뜻밖의 제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개발처 기운도 대리

품이 이미 결정되어 다시 윗분들을 설득시키고 이번에 출품된 제품으로 재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제품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과 시대를 앞서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 시대를 앞서가는 추세를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품의 생명력도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밝히는 기 대리의 모습에서 디자이너다운 고집을 느낄 수 있었다.

패키지디자이너인 동시에 소비자인 그는 앞으로 포장디자인의 역할이 제품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포장 선진국에 수출하기 위한 포장은 더욱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가 안타까워 하는 것은 디자인에 맞추어 포장기술도 뒤따라 와 주어야 하는데 디자인과 포장기술의 차이가 커 수출상에 문제가 간혹 발생되기도 하며, 디자이너들도 보다 적합하고 적절한 재질선택에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디자이너들도 스스로 포장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장에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농산물은 제품자체가 워낙 저가이다 보니 우리나라 사정상 비싼 포장을 적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생산자의 특성상 많은 원가부담을 안으면서 굳이 비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공산품과 같이 많은 투자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개발품으로 신선도 유지 골판지 등 기능성골판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라고 기 대리는 밝혔다.

수출포장디자인을 담당하다 보니 해외출장이 많다고 밝히는 기 대리는 이미 유럽, 일본, 홍콩 등지를 다니며 각국의 농수산물 포장시장을 파악해 왔다. 일본의 경우 똑같은 디자인을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키거나, 박스크기에 차별화를 주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세계경향이 이런 현상을 띄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칼라는 그린마케팅을 선호하여 그린과 블루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품자체보다도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장박스는 중량이 대폭 작아지면서 형태도 작아지는 경향입니다”라고 최근 동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을 다니며 시장조사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은 자료조사의 중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디자인 전문회사가 이러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업체를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함께 일한 디자인터치의 디자이너들이 모두 젊어 감각이 통해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마지막까지 디자인터치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에서 앞으로 그에게서 나올 디자인제품의 향상을 상상할 수 있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출포장디자인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기 대리 한명 뿐이지만 올해 인원을 보강하여 더욱 이 분야에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투자여력이 없는 농산물 생산자들을 위해 금년도에는 40개품목,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며 각 농수산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이 늘고 있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

이선하 기자